

민요를 통해 본 제주민들의 세계 인식*

좌혜경**

목 차

- I. 서
- II. 제주민요에 나타난 세계 인식
- III. 결어

I. 서

제주도 민요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제주도 민요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었고 민요를 수집한 자료집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1) 그것은 제주도 민요가 문학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노래는 바로 당대의 사회나 역사를 반영한다. 하나의 노래는 불러지기 시작하면서 곧 공감대를 형성하여 섬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 노래의 사실 각편에 다른 각편을 엮어 가면서 제주인들의 노래는 늘어가게 된다.

특히 조사된 민요의 창자는 대부분 여성인데, 이들은 노동과 함께 살아왔다. 물 위에서 배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젓는 소리>, 김을 맬 때 부르는 <김질메는 소리>, 집 한 구석에서 맷돌을 돌리거나 방아를 짚으면서 부르는 <맷돌·방아노래> 등 그녀들의 노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녀들은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의 양을

* 이 글은 1996년 11월 21일 제주 4·3연구소 주최 「금요역사교실」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한 것임.

** 제주대 강사

1)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집은 18권으로 밝혀지고 있다. 참고문헌란의 자료집 참고

음악 상자의 개수로 나타내어 아홉 상자 반이나 된다고 했다. 노래 중에서도 맷돌을 돌리거나 방아를 찼을 때 부르던 노래는 작업의 기능이 정적이고, 거친 노동이 아니며,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풀어헤친 사설을 구연하기에 용이하다. 그래서 제주도의 <맷돌·방아노래>의 사설은 중국의 『詩經』이나 일본의 『萬葉集』에 비견된다고 한다.²⁾

저레가는 청비발아기
이내방이 도왜여주라
노래하나 더배와주마
훗일곱에 부르던노래
아홉상지 반이여마는
반상지나 더배와가라

韓民族이 歌舞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면 과거의 제주 여성들 역시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방아를 찼으면서 맷돌을 갈면서 그들은 아홉 상자 반이나 되는 노래를 불렀고 반 상자를 더 배워서 온전히 열을 채우려했던 것인가.

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同一한 曲調에 자신의 심정을 담아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가사를 만들었다. 그 엄청난 상자 속의 노래는 제주인들의 마음이고 제주의 歷史이며 삶 그 자체이다.

제주도 민요 사설에는 개별적인 삶이 형상화되고 있다. 표현의 民俗材인 노래는 민속다운 感情的인 가치, 審美的인 가치, 認識論的인 가치들이 나타난다.³⁾

삶을 노래한 여성 노래에 나타난 제재들을 구분하면 1. 노래 혹은 소리에 대한 인식, 2. 남편과 침, 3. 시집살이관, 4. 강남, 5. 이어도, 6. 인생관·운명관, 7. 부모, 8. 자식관, 9. 형제관, 10. 서울 인식, 11. 양반관, 12. 官과 法, 13. 님에 대한 인식, 14. 가난과 재물, 15. 노동과 근면, 16. 기타 등 다양하다.

수집된 제주 여성의 노래들을 통해서 삶의 제반 현상과 認識論的 가치들을 分類하고 제주 지역의 社會, 歷史와 自然環境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精神 世界를 추출하고 제주인의 삶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한다.

2) 高橋亨, 『濟州島の民謡』(東京:天理大 東洋學研究所, 1968), p.37.

3) 김열규, 『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여』(조선일보사, 1987), p.234

II. 제주민요에 나타난 세계 인식

1. 노래 혹은 소리의 인식

문헌기록으로 제주도 민요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高麗 때 李齊賢의 『익재난고』인데, <望北風船子>와 <수정사> 두 곡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조 후반이 되면서 제주도 기사가 실린 『여지승람』을 비롯한 여러 책에서 일반적으로 “방언이 어렵고 맷돌소리가 심히 괴롭다.”라고 하고 있다. 특히 仁祖 때의 鄭蘊 桐溪는 섬의 여자가 지은 방아노래(杵歌) 1절을 들고서 “밤부터 새벽까지 맷돌을 돌리거나 방아를 찧으면서 부르는 구슬픈 노래가 나그네를 슬프게 한다.”라고 노래했다. 이처럼 곡조와 거기에 담긴 사실은 슬픈 내용을 담고 있으며, 恨의 悲歌라고 하는 점을 꼽고 있다.

제주 여성들, 특히 이 섬의 과거 여성들은 너무도 많은 질곡과 고난 속을 헤엄쳐왔다. 그 고난은 섬 여성들을 시인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한이 담긴 노래들을 만들어 온 것이다. 육지부 여성들인 경우 그 한은 놀이 속에서 신명풀이라 한다면, 제주 여성들은 일 속에서나 신명풀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의 노래는 삶을 반영한 한풀이인 셈이다.

김대행은 제주민요에 대한 노래의 인식을 창자들의 의식을 통해서 추출한 바 있다. 곧 노동의 조율을 위한 기능으로서 ‘노동축진의 효과’, ‘정신적 분발의 효과’, ‘질서부여의 효과’가 있으며, 심리상태의 언어전환의 효과로서는, ‘갈등의 표출’, ‘대리성취’, ‘갈등의 억압과 은폐’, ‘언어적 반동’ 등으로 살핀 바 있다.⁴⁾

그러나 그녀들 대부분 자신들 노래는 한풀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욱 강하다.

지을방애	다지여가도
부들노래	수만일러라
방앗귀광	시왕땀굴안
십어서난	설운말한다
뽕뽕달망	목이나나라

4) 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 『濟州島言語民俗論叢』(현용준박사 화갑기념논총)(제주문화, 1992), pp.169~194.

어명상에 노래나불령
시름이나 쉬여근가저

과거 제주 사람들의 삶은 어두웠다. 특히 여성들의 가장 직접적인 슬픔의 원인은 노동이나 가난으로 빚어지는 생활의 비참한 상황과 사별한 남편, 첩, 시집살이, 시집식구에 대한 원망이나 친정식구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일관된다.

벼름불영 절갠날시멍
천동울영 비갠날시라
원진돌밤 붉은날시멍
이내가슴 환환날시라

바람으로 일어나는 바다 위의 파도, 하늘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 밝은 달밤의恨에 젖은 모습, 가슴 속의 답답한 심정, 제주도 여성들의 삶은 상당히 어두웠다. 답답하고 어두운 삶의 표현이 자연물을 형상화 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울고새는 장뚝의고기
아니먹첸 원정일러라
동지섯달 지나진밤에
뚝의소리 내벗일레라
뚝의 소리 밤뚝의소리
소리조차 서찰아서라

동지 선달 긴긴 밤을 울음으로 지내는 기구한 여인이 자신처럼 새벽에 우는 닭 소리는 마냥 서글퍼서 자신의 신세와 같은 장뚝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의지가 내려된 각편이다. 노래가恨이 맺혀져서 소리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슬픈 노래의 청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고 자신을 위한 노래이었으므로 독백이었다.

나놀래야 산넘영가라
나놀래야 물넘영가라
저산뒤에 나어멍잇당
설운아기 소리엿호께

산넘은뉘 어멍이살고
물넘은뉘 이방이산다

민요를 통해 본 제주민들의 세계 인식

물도산도 내넘지말앙
요집올래 뒤돌아오게

이러한 비극적 삶의 슬픈 노래를 산 넘고 물 지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들려달라고 했다. 생계의 어려움, 시집살이의 고충, 남편과 不和意 등 여러 삶의 고통의 토로대상을 부모로 정했으나, 다시 자신한테로 되돌아 와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고통의 소리는 자아를 향한 독백이었다.

서민시가는 고급스런 문학가의 정교하고 의도된 표현과는 비할 바가 못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순수한 심성에서 가식없이 우러나는 자연의 소리인 민요는 그 자체로 감동적인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문학적인 훈련이나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공감시키게 된다. 슬픔을 맛보았던 경험이 있는 서민은 누구나 이를 공감하게 되며 심금을 울리게 되는 것이다.

2. 남편과 첩

모든 슬픔 중에서 가장 슬픈 것은 남편과의 이별일 것이다. 배나무를 심고 간님은 배가 열려서 먹게 될지라도 오지 않는데, 어느 곳인지 얼마나 깊은 나라인지 모르지만 가서 올 줄 모른다. 곧 여인들은 '이어도'를 연상하게 되며 이어도는 슬픔과 낙관의 이중성을 지닌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 곧 연인을 떠나보낸 현실적인 슬픔의 땅이며, 영원한 피안의 안식처인 이 곳은 떠나버린 사람이 거기에라도 거주길 바라는 염원의 땅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恨 그 자체이다.

죽자하니 청춘일러라
살자하니 고생일러라
남가실제 호터진머리
누궤보양 분성저호리
미녕사라 베사라흔들
이몸사랭 어디가호리

아주 지극한 고독이다. 이 고독 속에서 사는 여인들의 노래는 눈물이며 한 그 자체이다.

마기나해 홀과소들엉

기둥안안	감장을돈다
실환죽은	무덤이시면
돌은무사	돌아나오리

풍년이 든 해에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의 탄식이 나타난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기둥을 안고 있다. 기다림에도 아랑곳 없이 죽은 남편의 일주기는 돌아오고 삼주기를 마친다. 차라리 주기라도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노래한다.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밤에 기어 들어오는 남자는 누구인가?

밤에오고	밤에간손은
어느고을	누권줄알리
읍내알헤	청버들남에
일흠이나	씨여근기라

남편이 있다고 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섬은 男少女多라고 해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다고 하고 『東國輿地勝覽』에는 女多男少라고 하고 있으며, 정조때 靜軒의 「耽羅雜詠」 16에

耽羅遙在海之中	男少女多今古同
牧子畦丁葑屋下	一妻一妾自成風

으로 되어 있다.

즉, 중이 공공연히 처자를 절 가까이에 축첩해서 둘 뿐만 아니라, 목장의 말치기, 작남까지도 작은집을 좋아해서 집안에 처와 첩을 두어 지내고 있다. 정헌은 남자가 5만이고 여자는 7만이라고 주를 달고 있으며, 남는 여자들은 남자의 신분이나 빈부를 가리지 않고 남의 첩으로 가는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 남자가 많은 이유를 뱃사람이 많아서 조난을 입어 해마다 남자의 수가 줄었을 것이라는 것, 둘째는 부역에서 빠지기 위해서 남자들을 호적에서 누락시켰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생계의 어려움으로 육지에 나가 생활해서 그렇다는 설 등이 있다.⁵⁾ 아무튼 남편이 첩을 하고 있는 여인이나 남의 첩으로 가는 여인들의 한은 남편이 없는 바나 다름 아니다.

우선 본처는 첩을 한 남편을 증오하게 된다.

5) 좌혜경, 『제주섬의 노래』(국학자료원, 1996), p.27.

민요를 통해 본 재주꾼들의 세계 인식

전처소박 양첩한눔아
 대천바당 가운데들엉
 궂을얇엉 돌진밤새라

훈모실에 세첩한눔아
 세솔밀에 불숨아보라
 내만나명 불아니난다

한번에 세 개의 술에서 밥을 지어보라.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남성의 상징으로서 불과 여성의 상징으로서 술은 상당히 적절한 비유의 대상물 차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남편에 대한 증오와 더불어 시أت에 대한 증오도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난다.

열병에도 못먹는물이어
 학질에도 못먹는물이어
 이물저물 독한물중에
 시أت물이 지독하더라

시أت도십견 물길에심엉
 물팡우에 내십어노앙
 장피가죽 부비듯혀져

본처나 첩이 같은 마을에 살 때는 샘에 물을 길러 갈 적에 만나게 된다. 본처가 첩을 만나면, 첩을 잡아서 물을 등에 지기위해 올려 놓는 큰 돌(물팡) 위에 놓아 혼을 내겠다는 의지가 격앙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첩을 만나서 절말을 맺으려고 찾아간 본처는 자신의 늙은 모습과 첩의 얼굴을 비교하고 첩을 인정하여 돌아서게 된다.

시أت이렌 뜰레가난
 가른밭헤 매마꽃굴이
 허원듯이 나안자서라
 내눈에도 저만흔것이
 님의눈에는 더홀말시라

남편이 첩한 이유를 자신의 못난 얼굴과 늙은 것으로 그 원인을 돌리고 자학을 한다.

남아남아	정드신남아
브리거든	꽃인제브리라
꽃가불고	남지은후에
님의만딜	내어디가리

그러면 첩으로 간 여자의 삶은 순탄한 것인가.

간간입젠	흰죽일러라
간간먹젠	흰옷일러라
간간늘젠	님의첩드난
어디간간	노라니훈다

첩으로 가는 여자들이 기대나 희망은 막상 첩으로 가서 생활하는 현실과는 아주 다르다. 좋은 옷을 입고 늘면서 한가히 살려고 했으나, 지니는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신업습도	하도나설완
갓스물에	여든남가난
두번세번	물더큰밥을
씹어주렌	앙영일레라

과거 가마를 타고 결혼식을 올릴 적에는 시집을 온다는 상징성으로 가족신을 가마 속에 넣고서 신부를 데리러 갔었다 한다. “신이 없다”는 것은 혼사를 치러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스물이 된 처녀가 여든 난 노인에게 첩으로 들어갔으나, 호강은 커녕 밥까지도 씹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야 한다는 고난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본처에게 원한 받는 첩일지라도 그 첩생활을 하는 여자들의 삶 역시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맷돌·방아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다음 노래는 본처가 첩을 향해 토로하는 노래이면서도 막상 첩의 경험이 있는 여자의 노래이기도 하다.

님의첩광	슬나무벼름
소린나도	사를매웃다
지새어명광	오름에돌은
둥글당도	사를매난다
유향좌수	첩으로마랑
산마목자	가실로가라

민요를 통해 본 제주민들의 세계 인식

妻의 虛와 本妻의 實을 대조해서 노래한 것이다. 첩이나 소나무에 이는 바람은 소리가 요란하나 소리와는 무관하게 실속이 없고, 조강지처는 오랜 간난 속에서 텅골다가도 언젠가는 인정받고 살 때가 있다. 곧 <진주남강요>에서 본처의 정은 평생이고 첩의 정은 삼년이라고 남편이 죽은 본처를 안고서 울부짖는 것처럼, 첩으로 들어간 여자의 삶 역시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록 산에서 말테우리를 하는 남편일지라도 본처로 가라고 경험적이고 교훈 섞인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남편에 의해서 야기된 恨 속에서 살아남은 여자의 몸은 어떤가.

남에마진	가슴이더나
돌에마진	가슴이더나
방장마진	자녀의소리
알니는진	가슴일러라
우리성아	나가슴보라
얼명상지	수지로구나
종이수진	방도비한다
이몸수진	무엇을하리

화자의 가슴은 나무나 돌, 몽둥이로 매맞은 것처럼 멍이 들고 헤어졌다. 종이가 헤어진 것은 방에 붙여서 밀도배로 삼기나 한다. 나의 몸이 헤어진 것은 무엇이나 쓸 것인가. 이처럼 제주 여인들의 한은 너무도 골이 깊었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관이 밝을 리가 없다. 그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노래 역시 어둡고 구슬프게 들릴 뿐이다.

3. 시집살이

<시집살이요>는 여자가 시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며 겪는 온갖 정서를 표현한 노래들을 말한다. 시집 식구들과의 갈등과 시집살이의 어려움, 친정에 대한 그리움, 남편에 대한 미움과 사랑, 증오가 주를 이룬다. 아무리 시집식구에 대한 감정이 앞설지라도 남편에 대한 것은 다른 인물들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하고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시집간 여자들의 시집관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다. 가고 싶지 않은 곳, 어

머니가 보낸 곳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하물며 결혼 후 친정에 오명가며 할 때는 친정에 와서 시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실푼씨집	삼년을사난
다운머리	고비로민다
고비고비	어느말꼭지
간장아니	석은말시라

아래 노래는 시집식구에 대한 각 인물들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석달만에	시냇에가서
찾방문을	열어다보니
시아방은	구쟁기덕시여
나를보난	새들각훈다
시어명은	암뿔의덕시여
나를보난	오지직훈다
시누이는	콩상의 덕시여
나를보난	호르륵훈다
남편내는	문계의 덕시여
나를보난	영구여둔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는 적극적이나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끝나지 않은 수평선의 관계이다.

시아바지	오시는길엔
황부석의	다리를놓고
시어머니	아프신눈엔
엿귀물이	단약일러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얼굴곱고	속구진각시
너븐들에	반잘귀러라
반작반작	좋아라마는
속도구진	각시일러라

며느리들이 시집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대개가 자식때문이라고 한다.

민요를 통해 본 제주인들의 세계 인식

가자흐난	가기는싫어도
아니가친	못할일러라
대추남에	연결란듯이
어린아기	사정일러라

시집의 친척(권당)에 대한 노래는 상당히 속담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밭딴들은	머들에간다
길에들은	에염에간다
이방상에	굿좋은말은
나신더레	다모여온다.

그렇게 지천으로 흩어진 밭의 돌은 한곳으로 모아 쌓아 놓고, 길에 나뒹구는 돌맹이들은 밭길에 채이어 구석으로 간다. 그러나 이 집안에 좋지 못한 여러 말들이 자신한테 방향을 트는 이유는 아무리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4. 제주도와 강남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의 양자강 이남을 가리킨다. 완전히 문학적인 칭호로 바뀌어 등장되는 지명이며, 특히 제주도 노래 속에 나타나는 강남은 아주 낮익고 익숙한 장소가 되어 나타난다. 섬사람들에게는 육지와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나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또 과거 중국과의 무역이 성행하여 왕래가 빈번했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바당	베놓지말라
강남바다	비지어온다

제주와 강남의 무역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곧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 물길이 거칠어 출발이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後漢書』와 『三國志』에 “東夷傳에 馬韓之西海島上有州胡國。其人短小髮髡頭韋衣有上無下。好養牛豚。乘船往來貨市韓中”이라 기록되어 있고, 州胡國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다. 이 주호가 제주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면 중국과의 무역은 삼한시대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서울가도	1년에온다.
강남가도	3년에온다
황천길은	조반날길이여
가난을줄	몰나라한다

서울에 가면 1년이란 시간이 걸리며 강남에는 3년이 걸리지만, 저승길은 곧 한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표출한 노래이다.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을 잃은 여성이 공간적인 지역을 설정하고 마음 속의 거리를 비유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일본서도	놀아온새야
강남서도	놀아온새야
오날가져	내일가져후게
청대남혜	진이슬나련
날개저전	못놀암서라

무역을 하며 다니는 남편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새’로 표현하고 있다. 서로 정을 두어 황급히 뿌리쳐서 떠나버리지 못한 離別에 관한 것을 묘사한다. 또한 후반부의 이슬 내려 날개가 젖어서 날지 못한다는 표현은 지극히 가시적 표현이다. 이는 다음 노래에서 더 구체화되는데, 날개가 젖어서 날을 수 없는 나비는 새보다 더욱 안타깝고 처절하기까지 한 존재이다.

강남서	들어온내비
내빈보난	늬늘개내비
청대입희	춘이실느련
날개젖언	못놀암서라

중국과의 관계는 무역을 통한 사회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많은 노래의 배경적 역할을 담당한다. 몽고가 침략해서 원나라가 섬을 정복한 것은 거의 100여년이 되니 상당수의 원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이주하여 살았고 그 후 많은 자손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東史會綱』 공민왕 23년 甲寅에 이르기를,

按元時以留鎮及牧馬元人來往於濟州甚多. 忠烈王時流罪人四十於此. 故濟州多元人子孫.

今趙李石肖姜鄭張末周秦之籍以元爲姓貫者是也. 明初定雲南從梁王家屬于濟州. 今元梁安姜對之籍以雲南爲姓貫者是也.

라 했다.

마지막으로 『원사』 「탐라전」의 머릿말을 인용하면 원과 고려는 제주를 한개의 섬나라로 보는 것을 증명한다. 즉 “耽羅 高麗與國也.世祖旣服高麗以耽羅爲南宋日本要衝.亦注意焉.”에 있어서 원도 결코 섬을 고려의 한 군현으로는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元史』가 특히 「탐라전」을 만든 것도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

곧 중국과의 관계는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있었으므로 강남이라는 문명이 발달하고 거대한 땅으로 여자들의 노래에는 시적으로 승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남쪽의 따뜻한 나라라는 겨울이 되면 제비가 날아갔다가 온다는 곳으로 항상 시적인 정서로 남겨진 곳인 셈이다.

5. 이어도

중국을 상징하는 강남, 중국과의 무역항로 가운데에 있는 섬 이어도가 있다. 그 섬은 중국의 해남성과 제주도 중간부에 위치하면서 제주민들에게는 낙관적인 유토피아의 섬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비극의 섬으로 등장한다. 남편이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제발 ‘이어도’에라도 가주기를 바라는 이상의 섬이며 이와 동시에 남편을 잃은 여인의 비극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이중성을 내포한 섬이기 때문이다.⁶⁾ 그래서 이어도는 현실성과 이상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섬인 것이다. 민요에서는 이어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비극성을 내포한 섬으로 상징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강남을가전	해남을보라
이어도가	반이라한다
이어말난	말이근가라
마랑가면	남이나웃나
이어말난	말이근가라
이어하면	나눈물난다.

6) 제주도 사람들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이어도는 이상향이라는 것과, 환상의 섬으로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불귀의 객이 표류하는 섬으로 인식되어 나타난다. 민요나 전설 등의 구비문학이나 시, 소설 등 기록문학 속에 등장하는 이어도와 무관하지 않다. 김영화, “문학과 이어도”, 『백록어문』12집(백록어문학회, 1996), p.47.

또한 제주도의 노동요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노래하거나 방아를 찧으면서 노래하는 <맷돌방아노래>에는 대부분의 노래가 ① 시작되거나, ② 한 노래가 끝났을 때, ③ 하나의 노래 중간 한 행이 끝났을 때, ④ 노래를 계속하면서 한 연이 끝날 때에 여음으로서 “이어이어”의 사실이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후렴을 이용하여 각 단락들이 연결되어서 한 편의 長詩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후렴은 “이여이여이여도흐라”, “이여이여이여도방애”, “이여이여이여동흐라”, “이여이여이여도그레”라 하는데 “이여소리”가 ‘이어’로 들려서 “이어이어도흐라”라고 부른다고 하기도 한다. 이 후렴구의 의미는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있으나 ① “이어도흐라”는 이어도예라도 가주길 바라는 것으로 의미를 두어 해석하는 경우와 또한 ② 이엿싸라는 힘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 ③ 노래를 하는 창자들은 별다른 의미없이 조흥구의 역할 혹은 훗소리의 여음 정도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의미구의 사실 속에서 이어도는 죽음과 연결되어 슬픔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엿문은	저승문이여
이여도질은	저승질이여
가난올층	몰르더라
신단보선에	볼반이농곡
애가카게	지들려도
다신올층	몰르더라

이어도라는 곳은 피안의 세계이다. 사람이 이승을 떠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을 여윈 여인이 보석을 껴매면서 애타게 기다리나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는 심정이 잘 표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어도를 이야기 하면 눈물이 끝없이 쏟아져서 나올 뿐이다.

이엿말은	눈물이진다.
눈물이지른	한강수뎨다
눔이나운덜	나무사울리
그랜보난	지남석그레여
지남석도	모다들른게뵈고나

민요를 통해 본 제주민들의 세계 인식

여성들은 눈물로 만든 세상을 살 수 없다. 자신을 가다듬는 모습과 자신의 처지를 일로서 극복하려는 자위적인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인들은 끝내 좌절하지 않고 강하다. 그래서 이어도는 슬픔과 눈물의 근원지이지 만든 않다. 여인국의 전설처럼 그 이어도는 아름다운 곳, 극락처럼 마당에는 온통 연꽃이 피어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어도문은	대문이네
대문뒤엔	방죽이네
방죽뒤엔	연꽃이라네
연꽃구경	좋다마는
연꽃구경	하려하니
못돌아오더라	

곧 이어도는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구경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상향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여성들은 비참한 현실의 난관을 헤쳐나가고 다시 일어나려는 힘찬 저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녀들의 삶의 역사가 오늘날 제주도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6. 인생관, 운명관

시집에 간 여자가 겪는 시어머니·시누이와의 갈등, 혹은 무능하거나 첩을 한 남편과의 관계, 또한 남편과의 사별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주된 제재이다. 그 상황에서 화자인 며느리는 친정을 향하여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노래 하게되고 친정부모를 그리워하게 되는데, 특히 사설에는 자신들의 인생관 혹은 운명관이 비관적으로 노래된다. 그리고 인생관이 비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숙명적인 인생관만이 아니라 극복의 양상도 근면한 삶을 살려는 의지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난다.

앞의 노래인식에서 본 것처럼 그녀들은 비극적인 삶의 토로가 '노래'라고 인식했던 것처럼 비극적인 운명인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게 된다.

돌도지는	지계여마는
낭도지는	지계여마는

우리어명 날지운지겐
높이버린 뒤지겔러라

자신의 운명을 무거운 짐을 지는 지계에 비유했다. 무거운 돌이나 나무를 지는 지계보다 어머니가 나에게 준 지계는 남이 던져서 내버린 지계란 말인가. 삶의 고통이 얼마나 지극했으면 이러한 노래를 할까? 그 심정을 헤아려 볼 만하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낭도팔자 조화렌낭은
대성전에 대들포매완
일천선비 양옆에세완
제주목사 절맛탐사라

낭도팔저 구저렌낭은
질껏집에 드물낭노완
서가집 짓엉
세계유녀 발길에는다.

땃구를 이용하여 팔자가 좋고 나쁨에 따라 인간 운명을 구분하였다. 제주목사에 게 절을 맡는 나무, 또는 遊女들의 발길에 채이는 목재의 처지를 자신의 삶에 비유했다.

이러한 어두운 인생관, 비관적인 운명을 팔자와 사주에서 찾는다. 그래서 자신이 9월생이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은 전생이 꺾어서는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데, 숙명적이다.

형난골로 나도가도
형은종고 난곳어라
궂인전성 골리단보난
원천강의 팔자로구나
원천강의 사주로구나

달이웃언 구월이던가
날이웃언 구월이던가
전생궂은 구월에나난
구월菊도 내국일러라

일천간장 다녹아간다

민요를 통해 본 재주인들의 세계 인식

서울문은 남대문이여
열놈이가도 못여는문을
전성곳인 이내몸가난
질로설왕 열어나진다

새의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마음의 창을 집안에서 열고 닫는 창에 비유하거나, 또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고통없이 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집을 지은 목수를 질책하는 모습에서 서민문학에 나타난 은유기법의 극치를 볼 수 있다.

이집지은 선장과 목수야
제가십에 손매도웃다
열명덕을 창이나주라
열명덕을 창아니주건
보명죽을 꽃이나주라
울명지신 우염당이여
우염종댄 주야로우난
나눈물은 長流水러라

어떤새는 낮에도운다
어떤새는 밤에도운다
요새저새 날ㄴ튼생이
밤낮몰라 우너는새러라

이러한 비극적인 운명은 어디서오는 것일까? 끝없는 고독과 한탄, 님이 부재한 자신의 지위 삶, 시집살이, 현실적인 가난과 고통 이러한 삶의 극복은 어려웠던 것일까? 그녀들은 삶이 어렵거나 고달플 때 친정부모를 그리워하게 된다.

7. 부모

부모는 친정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우선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마음의 평온을 찾거나 혹은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같은 여자로서 동생애와 연민을 가져 어머니나 딸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이 애뜻하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많은 각편의 노래를 낳았다.

가면어멍	보리연마는
아니가난	그리는구나
어멍한테	날가랭호면
안진숫해	물피기전에
천기보멍	새늘듯호마
왕대죽대	섯베인그루에
신을벗엿	돌오멍기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노래는 高橋亨이나 김영돈 등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카하시는 조선민요 중에서 母子의 애정은 지극하다고 했으며⁷⁾ 김영돈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씨실과 날실의 관계로 표현 했다. 그리운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는 왕대 죽대를 어숫 잘라 신을 벗고 달리면 발에 피가 흐를지라도 그 위를 달려가겠다는 심정이다. 유교의 효의 도리를 끌어드리지 않더라도 서민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진솔된 생각들이다.

저산이랑	난지첸호난
짐패졸란	못지더라
부모공은	가프첸호난
멩이졸란	못가프더라

여기저기 솟아있는 어마하게 큰 오름들을 등짐으로 나를 수 없는 것처럼 높고높은 부모의 은공은 죽을 때까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극함을 표현한 노래이다.

다음은 부모님이 더운 날에 길행을 떠나서 부모를 걱정하는 자식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구름이라도 되어 가는 곳마다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덜어드렸으면 하는 심정이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의 정이 상당히 애뜻하다.

유월더워	더위엿말라
정칠월이	한더월러라
설운부모	길행을가난
이내몸은	번구름뒤여
간대마다	그늘이될걸

7) 高橋亨, “조선민요 중 母子의 愛情謠”, 『朝鮮』 255.

민요를 통해 본 제주인들의 세계 인식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효심은 더욱 강조되어 나타난다. 부모를 돈을 주어서 금전으로 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산 때의 효심을 강조하여 돌아가신 후의 유교적인 의례가 소용없음을 표현한다.

양친부모	신사름덜아
산때효심	호소서한다.
죽어근애	삼대상호명
삼헌관애	양집사세왕
술삼잔애	침작올한들
어느잔이	골라니한다

물에바놓	좀좀이쫓언
금사실로	주머니놓앙
부모사렝	서울을가난
부모그튼이	흐나이웃다

친모에 비해 계모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배척적이다. 친모와의 관계는 눈에서는 물이 마를날이 없는 삶을 살아야하며, 검은 눈동자가 아닌 하얀 눈동자로 자신을 쳐다보는 모습이 무섭기조차 하다

어멍시민	웃반반입을걸
아방시민	신반반신을걸
다삼어멍	개년의딸년
눈물반반	해아니끈어
검은공즈	개주어두언
흰동자로	날브리더라

8. 자식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생각은 위의 여러 노래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부모에 기대거나 의타적이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민요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흔히 향간에서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라는 속담을 방불케 하는 노래들이 불려진다. 자식의 無用과 혹은 부모 공을 몰라 하는 아쉬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아들잇겐 은괵에가멍
 아들웃겐 늦괵에가라
 아흠아기 열아기나은
 문왕비도 소남괵이여

여기서 문왕비는 文王의 妃 태사를 지칭한다. 가장 위대하고 현명한 자식을 낳은 현처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죽어서 묻힐 때에는 소나무의 관을 사용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자식없는 사람이 자신을 위로한 노래이거나 자식에게 배반당한 사람이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상本은 아기넷본이여
 본이하면 서름이한다
 아기웃댄 물그럽서냐
 본대아기 웃인간한다

다음의 노래는 돌 위에 난 나무를 기름진 땅에 심었더니 자신이 자라서 그 은혜를 모르더라는 내용이다. 제주도의 속담에 부모가 자식에 섭섭하면 “질로 큰양 혼다”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고생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남의 자식을 도와서 키워더니 그 은공을 몰라함에 대한 배신감을 노래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石上에 잉거단낭글
 일러단에 왕당에싱건
 저의몸이 이성당흐니
 싱근나를 몰나라한다

9. 형제

형제와의 관계는 서로가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상보적이다. 형제에는 형제로 인해 나타나는 위세에서 더욱 강하게 생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나가 남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육지부의 여러 민담에 나타나는 것처럼 상당히 애뜻하다. 또 형제가 없는 외로운 자신의 고독과 형제가 많은 집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낭좋은댄 그늘이중나
 동생한댄 위품이중나

민요를 통해 본 제주민들의 세계 인식

외낭개 외동박 7치
외로난일 설와라흔다

바당절이 울어도근심
굿디절은 울어도근심
하낫동성 물위에노안
근심으로 날세염서라

결혼하기 전과 그 후에 느끼는 형제애의 정을 비교하여 묘사하고 있다.

머리삼갑 등에는적인
부모동싱도 있었전마는
삼갑머리를 육갑에 닿으난
부모동싱도 허세일러라

10. 서울

서울이란 곳은 문명이 발달하거나 진보한 곳으로 묘사되는가 하면 또는 서럽게 살아 서울이다라고 표현한다. 계층간의 격차가 심한 곳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 토종의 닭은 소리조차 좋고 그 소리는 섬에 울린다라고 하며 섬을 國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서울뉘은 소리란종안
고비강남 소남에안잔
도내국을 지올리더라

서울의 모래는 백모래인데 서울간 남편은 그 모래소리 때문에 삼년동안 살고 온 것일까? 서울을 가 볼 수 없던 과거의 여성들은 서울을 유추하여 상상의 세계를 펼쳐고 있다. 그리고 서울은 아름다운 자주꿈이 생길 수 있는 번화하고 화려한 곳으로 여긴다.

서월몰렌 백몰렐러라
맹지바지 새슴소리
자국마다 서르릉흔다
그소리랑 반기여들언
돌암들멍 삼년일러라

좁쌀로랑	저구리짓곡
입쌀로랑	짓을달아서
곰도웃이	서월을가난
자주곰도	생겨라흐다

그러나 서울은 살기 좋은 곳만이 아니다. 물가가 수시로 오르내리고, 사람들은 물마저도 썩은 물을 마셔야 만 하는 그러한 곳이다. 또한 한 숟가락의 밥도 열 사람이 나누어 먹으며, 한 벌의 옷도 백 사람이 입어야 하는 살기에 상당히 힘든 곳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센	오르고나려
여깃시센	흔시셀러라
서울물은	인썩은물이어
내부모도	먹어나흐다
서월서월	어떤게서월
훈술밥을	열놈이먹어
훈불옷을	백놈이입언
설이사난	서울이러라

11. 양반

서민들은 양반을 동경하고 숭배했다. 특히 중앙에서 내려온 유배인이나 관리들도 섬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환영받았던 것 같다. 육지부의 민요나 판소리, 가면극에 흔히 나타나는 양반에 대한 풍자나 야유는 제주도 민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걸난지건	양반의걸은
길에병풍	들른간흐다
걸낭지건	상놈의걸은
소왕가시	드딘간흐다

“걸”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한다. 예를들면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던가 혹은 사돈관계를 맺는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향이 우세했으리라 본다. 양반과 상

민요를 통해 본 제주민들의 세계 인식

놈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묘사하여 병풍을 두른 모습과 소왕가시를 밟은 느낌으로 표현했다.

날랑죽건	필에나물엉
송어생성	몸에나기근
서울양반	칠반에올랑
무남계로	굴리어보자

날랑죽건	닥발에물엉
나우회랑	조희닥나건
그닥벧경	대백지디영
그닥벧경	소백지디영
삼천선비	글밭에늘저

양반에 대한 동경은 이승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죽어서라도 양반과의 관계를 원했다. 차라리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쟁반에 올라 서울양반의 입속으로 들어가 먹이라도 되거나 또 닥발에 묻혀서 종이가 되어 양반의 글을 쓰는 대백지라도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12. 官과 法

제주민들의 官에 대한 혹은 法에 대한 생각을 노래한 몇 수가 있다. 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데 이는 서민 문학의 일반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늙은 관의 노비가 물을 길어와야 하는 고역을 노래하는 경우이다. 마치 <장연인형극>에서 박첨지를 시켜 물이군들을 사오도록 했는데, 농번기라서 물이군이 어디 있느냐고 하자 늙은 박첨지를 물이군으로 데리고 다닌다. 이 과장에서 자기의 유희와 쾌락을 위해서는 농사일이고 늙은이고 가리지 않는 봉건관료배들의 반서민적 악정을 포로한 것⁸⁾과 상통한다. 또는 비가 엄청나게 와서 목안에 물이 넘쳐 악정을 행하는 관리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피신해서 관리들이 없는 섬이 있으면 하고 동경하기도 했다. 그리고 새로 온 官吏에 대한 기대가 舊官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8)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한국문화사, 1996), p.262.

되만섬의 삼관장드난
늪은종을 물지랭혼다

이여도러라 이여도러라
비랑오건 장마로오라
관청못이 연못이되면
목안판판 배놓아가게

신관이엿 일컷도말곡
구관이엿 해갓도말라
산지물을 사흘을먹으난
쉬의공사 훈공사러라

그러면서도 관리의 생활은 명령에 따라 어디든지 가야하는데 거의 다 된 밥도 먹을 겨를이 없이 떠나야 하는 삶의 처지를 동정하여 노래하기도 한다.

관원살이 늪의집살이
깨는밥도 두어근간다

이 노래는 근대 일본 강점기의 식민지 정치를 묘사한 것은 아닌가 한다. 수시로 변하는 법 제도, 산과 물은 의구한데 법은 어찌 새법인가? 서민들에게 적합하고 타당한 그러한 법이 아닌 것에 대한 한탄이라 할 수 있다.

산도보면 옛산일러라
물도보니 옛물일러라
법은어찌 새법이던가

13. 님

동서양, 어느 시대의 문학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되어 노래된 제재는 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현대에 와서 불려지는 가요의 제재도 역시 님이나 사랑에 대한 주제가 일관되게 나타난다.

국문학에서 님은 문학전반에 걸쳐 정서적 동감대를 형성하였고 특히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다. 노래 속에 나타나는 님만하더라도 <공무도하가>에서

민요를 통해 본 제주인들의 세계 인식

미쳐서 술병들고 물에 빠지는 남편, 고려가요의 가시리의 님, 서경별곡의 님, 조선조에 와서는 비록 戀君之情일지라도 님으로 표현한 시조나 가사에 나타나는 님, 근대에 와서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의 님 등 어느 사람들에게거나 님은 각별한 대상이었다. 제주도 여성들이 마음 속에 지녔던 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제주도 민요에서도 님은 자주 등장하는 제재이다. 특히 서민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님이 귀족계층의 님과 연모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님에 대한 사고는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님의 유형으로는 우선 아름다운 님이다. 곧 아름다운 님은 풀피리(초제)를 붙거나 옥지에서 온 가문포 장사, 또는 밤에 찾아 온 님으로 나타난다.

님사오겐	설십이런가
내가가겐	명십이런가
명주바지	실명주소리
귀에정정	열리엽서라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인 님은 명주바지를 입어서 서민이 아닌 귀한 신분의 님이다. 그리고 풀피리를 유창하게 잘 붙여 달보다도 더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것 같다.

길주명천	가문포장사
어두우면	어디로가리
옥녀신녀	방으로가라
산지물광	가락כות도
훈디눌젠	언약일러라
가전아니	울님이어든
언약아니	말이근가라

저바당에	젯소리난들
어느고을	뉘겐줄알리
맹게잎에	초제나불렁
님의젠줄	정령이알저

새별왕의	돌굴은님아
돌이아무리	굽다라한들
달이곤들	님만이흐라

님 노래의 두번째 유형은 사별이나 이별로 인해 찾아오지 않거나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님의 상실로 빚어진 공허감, 그리움을 표현한 것들이다. 님과의 이별은 그리움으로 일관되다가 지나치면 님을 책망하기까지도 한다. 또 사별한 님의 모습을 우는 새에서 찾는다. 또 님 오기를 기다리는 망부석의 모티브는 한국인의 문학적인 관습이다.

질껏집에	桃實남상건
싸냐도냐	맛불인서도
지녕살이	하니이웃다

낙낙장송	늘어진가젠
홀로안진	우너는새야
내님죽은	영혼이런가
날곳보민	시시로운다

님도갈제	심어란배남
배는열안	먹으려만는
님은가난	더디나온다

또 세번째 유형은 님없는 자신의 고독을 노래하고, 고독 자체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한 님으로 빚어진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묘사한다.

집에반초	싱그지말라
반초앞에	물지는소리
업는님의	발자최소리
귀에쟁쟁	열리염서라

간장식은	말이언마는
숫이올란	눈으로난다
눈물속에	배세와두언
한숨으랑	밥으로먹꼭
눈물로랑	세수나흐져

벧날날에	어느비오리
제주영산	드리운빗발
설운정에	눈물이러라
눈물소에	배세와두언
한숨으로	저으명갑서

민요를 통해 본 제주인들의 세계 인식

서러운 정으로 빚어진 눈물이 소가 되었다. 그 소는 오리가 노는 것처럼 작은 연못가가 아니라 배를 세울 정도로 큰 바다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배의 항해를 돕는橈는 바로 한숨으로 항진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곧 한숨은 배를 밀고 나갈 바람으로 비유를 했다. 그러면서도 님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록 님이 자신에게서 떠날지라도 당당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님의 부재를 자위하기도 한다.

입아임아	정한말하라
천리뒤에	놈으로알마
임없어도	날새히더라
독없어도	날새히더라
임광독은	웃어도산다

14. 가난과 재물

제주도 민요에는 가난에 관해서 노래한 각편들이 상당히 많다. 과거 제주도 민들의 還海天險과 地瘠民貧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다. 가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으나 저절로 가난했다는 표현은 노래하는 서민들 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의 굴레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관가에 가서 춘궁기에 빚을 지어 추수가 끝난 가을에 빚을 갚는데,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보았을 때 당황해서 길가다 만나면 왜소해지는 모습을 등을 굽혀 길구석에 든다라고 표현을 했다.

가난호쟁	뉘호리마는
명지비단	천아니둘러도
절로가난	되여라혼다

가난호젠	뉘호리만은
가난가원	집마다있고
님그림은	나만일러라

하늬서방	한서방집에
빚지어먹은	장례가시냐
빚져먹은	위례가시냐
등을굽혀	에염에든다

제주민들은 가난으로 지속된 삶을 살 지라도 재물에 얽매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자신이 거주할 집조차도 들에 나가 이엉과 띠를 마련하여 삼간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비록 가난할 지라도 가장 인간의 기초적인 의식주의 해결은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과 물가를 비교한 각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물가가 한 시세이다”라고 하는 표현 등으로 삶의 격량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재물로 인해 거만한 사람을 질책한다.

집신년덜	집자랑마라
어욱닷뭇	새닷뭇드려
지여보난	삼간일러라

15. 노동과 근면

노동의 댓가는 금전이나 재물과 연결시켜 현실적인 사고를 했다. 곧 자신들이 부지런히 노동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나동침아	돌아가라
서울놈의	술잔돌듯
어서속히	돌아가라
이양태로	큰집사곡
이양태로	큰밭사곡
늙은부모	공양호곡
어린동생	공부호곡
일가방상	고적호곡
이웃사촌	부조호세

노래로 힘든 일을 이겨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흥을 보지 말라고 한다.

놀래호건	송시앵말라
일도버친	놀래일러라
굽엉일엉	쌍일일러라
소리로나	이겨라훈다

민요를 통해 본 제주인들의 세계 인식

낮에는 밭이나 바다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방아를 짙는다. 방아를 부지런히 짙어두었다가 밭에 갔다와서 저녁을 짓는데, 어느 날인들 저녁이 밝은 제 되겠는가? 저녁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밤도 어둡지 않다고 했다.

이여방에	고들베지영
즈낙이나	붉은제허라
본디즈낙	늦어란집에
오늘이영	붉은제허라
밤도아니	어두윌러라

노각ㄴ튼	나어깨들렁
요만일성을	나버칠말가
흐당말민	눔이나웃나
흐다말일	일아널러라

돌도붉고	서리찬밤에
이덧저닷	장차고물찬덧은
이덧이사	눔을준덜
내덧이사	눔을주라

근면은 곧 노동과 연결시켜서 묘사된다. 방아를 짙으면서, 노를 저으면서 고된 노동을 지속해가기 위해 노래는 자신을 위로하고 부추하거나 또는 채찍질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너무도 근면하고 어기찬 삶을 살아왔다. 그 정신은 바로 제주인의 전통정신이며 바로 삶의 의지라 할 수 있다.

Ⅲ. 결 어

제주도 민요사설에는 감정적 가치, 심미적인 가치, 인식론적인 가치들이 나타난다. 사설에 나타난 인식론적 세계를 제재를 중심으로 추출하여 보았다. 이후로 감정적, 심미적인 가치를 논할 예정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이 불러지는 제재들은 1. 노래 혹은 소리에 대한 인식, 2. 남편과 첩, 3. 시집살이 4. 제주도와 강남, 5. 이어도, 6. 인생·운명관, 7. 부모, 8. 자식, 9. 형제, 10. 서울, 11. 양반, 12. 官과 法, 13. 님, 14. 가난과 재물, 15. 노동과

근면 등이다.

1. 노래와 소리에 대한 인식은 노래나 소리가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불러지는데, 모두가 恨의 悲歌라는 것, 곧 인간의 한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 남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첩은 자주 등장하는 제재라 할 수 있는데, 섬 사람들 사이에서는 첩제도가 공공연히 인정되었고, 그러면서도 첩의 신세를 자탄하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첩의 삶이 순탄하지 않고 무의미함을 강조한 것들도 나타난다.

3.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나는 시집관은 부정적이며, 그러면서도 시집에 얽매는 것은 자식들로 인한 것이라 보고 있다.

4. 강남이라는 곳은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먼 곳이면서도 문명이 발달된 곳으로 여기고 있으며 과거 중국과의 무역 등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곳이기도 한데 문학적인 칭호로 바뀌어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5. 이어도는 비극적 현실과 이상적 낙관이 이중성을 띠어 표출되는 곳으로, 비극적이기도 하고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천국, 이상의 섬이기도 하다.

6. 노래 속에 나타나는 인생관과 운명관은 비판적이며 숙명적이다.

7. 부모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거나 효의 실천을 기구한 노래들이 많다. 그리고 친모에 비해 계모는 상당히 배척적인 존재이다.

8. 자식에 대한 노래에는 자식의 無用과 키워준 공을 몰라하는 데 대한 아쉬움 등을 표현한다.

9. 형제관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상보적이다.

10. 서울은 문명이 발달되고 진보한 곳이나, 물가가 수시로 변하고 삶이 어려워져서 서러운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

11. 양반은 상당한 동경의 대상이다.

12. 관과 법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노래들이 몇 수 있다.

13. 제주도 민요에는 님이 아름다운 대상으로 표현되거나, 님의 부재로 나타나는 파기된 심정에서 우러나온 정서, 곧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묘사하고 있다. 또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타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묘사한다.

14. 가난을 노래한 것들에서 직접적인 가난의 원인은 표명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재물에 얽매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15. 가난을 노동과 근면으로 극복하려고 했으며 노동의 대가를 현실적으로 금전과 의식주의 해결에서 찾고 있다.

민요를 통해 본 제주인들의 세계 인식

이외에도 더 많은 제재들을 중심으로 인식론적인 가치들을 살필 수 있으나 위의 항목으로 정리해 두고자 한다. 특히 자연풍광, 지역인식, 노동의 세계 등은 심정, 심미적 가치를 다루면서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인식론적인 세계와 제주민의 특수한 상황에서 빚어진 세계 인식의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질곡을 자신의 노력과 부지런함에서 찾으려했던 세계인식의 가치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金思燁・崔常壽・方鐘鉉 공편. 『朝鮮民謠集成』. 서울 : 正音社, 1948
- 김영돈 편저. 『제주의 민요』. 서울 : 신아문화사, 1993
- . 『濟州島民謠研究(上)』. 서울 : 일조각, 1965
- 金永三 編. 『濟州民謠集』. 한용주 蒐集. 서울 : 중앙문화사, 1958
- 뿌리깊은나무 편. 『뿌리깊은나무 팔도소리 제3집 : 제주도 민요』. 서울 : 한국브리태니커사, 1984
- 양홍식・오태용 편. 『제주향토기』. 필사본, 1958
- 林 和. 『朝鮮民謠選』. 이재욱 해제. 京城 : 學藝社, 1939(소화14년)
- 제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제주 : 제주문화방송, 1992
- 좌혜경 편저.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1995
- . 『제주전승동요』. 서울 : 집문당, 1993
- 秦聖麒. 『남국의 민요』. 제주 :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 . 『오돌뜨기』. 제주 : 우생출판사, 1960
- . 『제주도민요』(제1집). 제주 : 희망프린트사, 1958
- . 『濟州島民謠』(제2집). 제주 : 중앙미술사 프린트부, 1958
- . 『濟州島民謠』(제3집). 제주 : 성문프린트사, 1958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9-1, 9-2, 9-3).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83.
- . 『韓國의 民俗音樂 : 濟州道民謠篇』.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洪貞杓. 『濟州島 民謠 解説』. 서울 : 省文社, 1963